

一齋先生이 창시한 四寸會

▣ 권태현

일재선생실기(一齋先生實紀)에 사촌회도(四寸會圖)와 이에 관련된 목은선생(牧隱先生)의 시가 몇 편 실려 있는데 목은은 일재선생의 손서(孫婿)로 작시(作詩) 배경을 시제(詩題)에 술회(酒懷)하고 있어 사촌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일재선생실기: 일재선생(一齋先生)은 북야공파조(僕射公派祖)의 장증손(長曾孫)으로 휘는 한공(漢功), 시호(諡號)는 문탄공(文坦公)이며 국재선생(菊齋先生) 문정공(文正公 諱博)과는 삼종항(三從行)이다. 고려중말(高麗中末) 충선왕(忠宣王)의 신임을 받아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을 18년간 지냈고 시문(詩文)이 중국에까지 떨쳤으나 문집(文集)으로 전하지 못하고 산일(散逸)되었는바 1922년 후손 송산(松山-韓奎奎)선생 등이 주옥(周玉)공이 발굴한 유문(遺文)을 토대로 더 보충하여 단권(單券)으로 편술(編述)하였다.

이에 시제(詩題)와 고전번역원(古典韓譯院)의 역주(譯注)를 전재(轉載)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다.

1. 醴泉君内外孫. 聚飲曰四寸會. 歲二人辦酒食. 僕憂病[▣]餘十年. 此會亦罕設. 李龜城欲振類綱. 三月初吉. 盛賓客. 大作樂. 視昔十倍. 明日追錄. 一首. 呈龜城座下. 幸捧腹. <牧隱詩稿 第28卷>

예전군(醴泉府院君)의 내외손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이름을 사촌회(四寸會)라고 하였는데, 해마다 두 사람씩 번갈아 가며 술과 음식을 마련하곤 하였다. 그런데 내가 근심과 병으로 지낸 십여 년 동안 이 모임도 거의 열리지를 않았는데, 이 오성(李龜城)이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울 목적으로 삼월 초하룻날에 빈객을 많이 초청하고 크게 풍악을 연주하면서 예전보다 열 배나 더 성대하게 잔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다음 날에 시 한 수를 추록(追錄)하여 오성 좌하(座下)에 증정하면서 한번 웃어 보도록 하였다.

사구(詩句):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오성이시라네 / 主人云是李龜城

(李 鰲城: 필자주) 李恒福의 封號가 鰲城府院君인바 鰲城은 慶州=月城의 古號 또는 別號로 일재선생의 長塲인 慶州人 壽得의 子이고 牧隱의 妻姑從 李成林이다. 侍中을 역임하였고 1373(공민왕 7) 왜구에 패전책임으로 崔瑬에 의하여 斬刑

2. 家貧 欲辦四寸會而未能. 乃有此作. <목은시고 제28권>

집이 가난해서 사촌회(四寸會)를 내가 주관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는 이 시를 지었다.

사구(詩句): 집이 가난해 모임 한번 주선하지 못한 채 / 家貧難辦會

병든 틈틈이 늘상 초대만 받고서 참석하니 / 病間每承招

3. 花原君之內外孫. 凡於慶弔迎錢. 相聚曰四寸會. 歲二人掌其事. 名曰有司. 有司於歲終作會. 以授其事於來歲之有司. 蓋家法也. 必邀父行一二人押座. 庚申仲冬二十又四日. 閔中立及吾豚犬種學辦其會. 僕與閱判事權判書在座. 大醉而歸. 日午始起. 吟一首. <牧隱詩稿 27卷>

외구(外舅=丈人) 화원군(花原君)의 내외손(内外孫)들이 모든 경조(慶弔)나 영전(迎錢)의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모이는 것을 사촌회(四寸會)라 이름하고, 해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관장하게 하여 그들을 유사(有司)라 이름하며, 유사는 세말(歲末)에 모임을 소집하여 그 일을 내년의 다음 유사에게 넘겨주곤 하는데, 이는 가법(家法)인 것이다. 그리고 모임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부향(父行)이 되는 한두 사람을 맞이하여 그 좌석을 주관하게 한다. 경신년[1380] 동짓달 2일에 민중립(閔中立)과 내 자식 종학(種學)이 그 모임을 마련하였으므로, 내가 민판사(閔判事), 관판사(權判書)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여 몹시 취해 돌아왔다가, 다음 날 한낮에야 비로소 일어나서 한 수를 읊는 바이다.

사구(詩句): 일곱 사람이 이제는 세 사람만 남았는데 / 七人今日只三人

[주D-001]일곱 …… 남았는데 : 화원군(花原君) 권충도(權仲達)의 아들인 판중정사시(判宗正寺事) 권사중(權嗣宗), 전법 판서(典法判書) 권계용(權季容)과 사위인 전보(全寶), 유혜방(柳惠芳), 판사(判事) 민근(閔謹), 이색(李穡), 김운철(金允澈)까지 모두 일곱 남매(男妹) 중에 이때는 오직 아들 권계용과 사위 민근·이색만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이런 말이다.

일재선생실기에는 “외구(外舅) 화원군(花原君)”을 예전군(醴泉君)으로 기록하였는데 개척자(開闢者) 종학(種學)은 목은의 종자(仲子)이고 민중립(閔中立)은 牧隱의 이질(姪)이니 화원군(花原君-문탄공의 장자 仲達)의 손환(孫衍)이라 목은시고(牧隱詩稿)가 맞으며 “이는 가법(家法)인 것이다”라 하였으니 대를 이어 전통(傳統)으로 운영한 것이 틀림없다.

문탄공(文坦公=131世) 이전(評理公=12世→僕射公=10世)에도 근친간(近親間)의 모임이 존재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목은시고(牧隱詩稿)를 통하여 문탄공의 내외손(内外孫)이 사촌회를 시작하여 증손(曾孫)까지 확장(擴張)계승(繼承)하지 않고 종가(宗家)의 차세대(次世代=花原君의 内外孫)만 先代의 예법(例法)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야매(麗末) 선조(鮮初)의 잦은 정변(政變)의 피해(被禍), 수절(守節) 은둔(隱遁) 등으로 종가(宗家)만의 가법(家法)도 단절(斷絶)된 것으로 짐작되나 200년 후 한사선생(寒沙-姜大遂)의 군중계서문(群從契序文)을 보면 여말(麗末)의 친족(親族)개념(概念)을 미루어 오늘날의 화수회(花樹會-夸親會)의 효시(曉示)로 자리매김 되니 성화보(成化譜)에 버금가는 權門의 자랑이라 자부(自負)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개촌(計寸)을 최초로 사용한 가문(家門)이 아닌가 한다.

4. 羣從脩稭序 寒沙先生(姜大遂)文集卷之五

不佞曾於數年前. 與内外羣從. 約爲脩稭. 歲以爲例. 而官途推移. 出入無常. 遷延往舊. 尙尙未就. 不勝介介于懷. 夏間在昇平. 簿領之暇. 偶閱牧隱集. 權體泉漢功之内外孫記此會. 牧隱以體泉之孫婿. 亦參是會. 仍作詩歸謝之. 余見之不覺神契而心融. 實喜古人之先獲. 而益恨計寸之差池也. 適於稾官歸田. 語及故事. 羣從之申請愈切. 遂尋前約. 約集於丘. 瞻古人九世同庭之事. 千歲僅一有. 不可得以復見. 又各有妻子之累. 未克分居異地者勢也. 勢之所使. 雖不可奈何. 春秋令節. 盍簪一堂. 叙契闊接殷勤. 豈非一端盛事乎. 因此而勸厲和悅. 日邁月征. 以毋忘約會之初意. 則其於昭代茂德之化. 亦不無小補云爾

필자역문: 못난 사람이 일찍이 수년전에 내외 여러 사촌과 더불어 계를 만들기로 약속하였으나 해마다 예가 되듯이 벼슬길에 따라 [서울]에 들고 남이 무상하여 세월만 흘러 지금껏 이루지 못하였으니 가슴에 걸림을 이기지 못하였다. 올여름에 평온한 때가 있어 문적을 행기는 여가에 우연히 목은집을 훑어보았는데 권예전[부원군] 한공의 내외손이 이런 모임을 베풀었다. 목은은 예전의 손서로서 이 모임에 참가하여 시를 지어 읊었는데 내가 보고 신성한 계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나 마음으로 융합하여 옛사람의 먼저 이룬 것을 실로 기뻐하고 오랜 계획의 차질을 더욱 한탄하였다. <이하 략>

(姜大遂)1591(선조 24) ~ 1658(효종 9) 호는 한사(寒沙), 1612년 증광문과(增廣文科) 을과(乙科)에 급제, 부제학(副提學) 대사간(大司諫), 참판(參判)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척화 상소를 올리고 동생 세마(洗馬) 大適(대적)과 함께 창(倡義)하였으며 고향으로 돌아가 정사(精舍)를 짓고 후학교육에 힘썼다. 1646년(인조 24) 寧國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一代 四寸會圖 <實紀所載인원 30人인데 관작(官爵)을 보아 당시에 作成된 것이 아니고 後世에 譜書를 근거로 추자(追作)한 것으로 보인다>

二代 四寸會圖 筆者가 成化譜대로 構成한 대상은 30人임

크리스마스 소고

▣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로 12월25일이며 그 전날 밤은 크리스마スイ브(Christmas Eve)이다. 성서에서는 하루를 전날의 일몰로부터 다음 날의 일몰까지로 치기 때문에 이 전야인 이브가 존중 된 것 같다.

그리스도가 12월25일에 탄생하였다는 확증은 없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만들어 낸 신성한 신화(神話)의 하나 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는 신약성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월 일 즉 탄생 일자에 관해서는 언급 되어 있지 않다.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자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6일, 3월21일(춘분), 12월25일 가운데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다. 로마교회(서방교회)가 12월25일에 성탄절을 행하게 된 것은 354년부터이며, 조금 뒤인 379년부터 그리스교회(동방교회)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冬至), 다시 말하면 태양승배의 습속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초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농경력(農耕曆)상의 성대한 제일(祭日)에 예수의 탄신을 결합

시킨 것이 크리스마스이다. 그리고 중세의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서의 의식과 농신제(農神祭)에 따르는 가장(假裝)이나 소요가 뒤섞여 행하여 졌다. 그것은 카니발의 요소도 있고, 일종의 혼성적 종교행사, 싱크리티즘(Syncretism)이었다.

<크리스마스의 할아버지> 즉 산타클로스의 민속에 따라, 차차 세속화하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엘(noels)이라고 불리는 성가, 이른 바 크리스마스 캐롤은 종교적이고 시작이며 소박하게 불가사의한 이야기로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대부분의 종파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의식을 행하고 있으나, 드물게는 특별한 예배를 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와(프레즈비터리

임금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기 319년에 후조(後趙)를 세운다. 노예에서 왕조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후조의 세력은 날로 커져 갔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있던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큰 나라가 되었다.

이쯤 되자 그는 조금은 편히 즐기면서 살고 싶었다. 그래서 도읍인 업(鄴, 하북성)으로 가서 궁궐을 크게 짓고자 하였다. 그런데 법률을 다루고 있는 정위(廷尉)인 속함(續咸)이 아픈 말로 궁궐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화가 난 석륵이 그의 목을 베려고 하였다.

이번에는 중서령 서광(徐光)이 말하였다. “속함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를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곧은 소리를 하였다고 하여 경(卿)의 자리에 오른 사람의 목을 벨 수는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앞으로는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조정이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석륵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임금이 되어서 스스로 이와 같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필부가 집에 비단을 100필만 가득 차게 갖고 있어도

언)나 제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 중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기간의 장식물로써 중심적인 것은 크리스마스트리이다. 이것은 3세기말, 어린이를 보호하는 쇼아시아의 성(聖) 니콜라스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성 클라우스(Saint Klaus)로 발음 된 것이, 네덜란드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잘못 불려서 성녀(聖女,산타)를 뜻하는 같은 산타클로스란 애칭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8두의 손목이 끄는 썰매를 타고 붉은 모자, 붉은 옷에 장화를 신은 흰 수염의 산타클로스가 북극에서 찾아와 큰 자루를 등에 지고, 집집마다 굴뚝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착한 어린이에게는 양말주머니에 여러 가지 선물을 넣어 준다.는 이야기와 행사는 오래된 기원(起源)이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불교의 사찰에서도 성탄축하 현수막을 내어 걸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며 또한 석가탄신일에 즈음해서는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석가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어 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다른 종교들 간에 서로 대립 비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다른 종교를 상호 이해하며, 성탄절에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집을 사려고 할 것인데, 하물며 부유하기가 사해(四海)를 가진 경우에만! 이 궁궐은 끝내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칙령을 내려서 중지시켜 곧은 신하의 기개를 만들어주어야겠구나!”

필부였다면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터인데, 천하를 다 가진 황제가 되어서는 마음대로 집도 하나 지을 수 없게 되었음을 한탄한 것이다. 그리고 석륵은 속함에게 비단 100필과 버 100곡(斛)을 내려주었다. 또 공경 이하 관원들에게 똑똑한 사람을 천거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인 궁궐을 짓기 보다는 명당(明堂)·벽옹(辟雍)·영대(靈臺) 같은 교육과 제사를 지내는 건물을 먼저 지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사저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다. 이번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물러날 때면 번번이 대통령이 물러나서 살 집 때문에 말이 많았다. 이는 그분들 주변에는 곧은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도 된다. 곧은 사람 하나도 없이 정치를 하였다면 그 정치는 어때했을까?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상상하니 마음이 서글프다.

하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이루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김 코리건은 10여년간에 걸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글을 쓴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며, 역사·기술·해의 라이프스타일 등 ‘스티브 잡스’ 편을 집필했다. 또한 권오열 옮긴이는 한국외국어대 영어과와 연세대학교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 에이전시 하니브릿지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역서로는 <투자가를 꿈꾸는 세계 청소년의 롤모델 워런 버핏 이야기> 등의 다수가 있다. (02)326-0026 (대) 명진출판

권일용 경위 과학수사부문상 수상



열린 기념식에서 과학수사부문을 수상하고 1계급 특진했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경찰정수사국 권일용 경위(47)가 지난 4월 제63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서울 미근

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과학수사부문을 수상하고 1계급 특진했다.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 회비

▲권무탁(부총재) 100만원
▲권영선(부총재) 100만원
▲권오영(부총재) 100만원

소계 300만원

▣ 종무위원 회비

▲권영근(서울 노원) 20만원
▲권호준(대전 서구) 20만원
▲권영무(영주) 20만원
▲권태현(진해) 20만원
▲권승호(의성) 20만원
▲권희철(대전 서구) 20만원
▲권혁근(대구 수성) 20만원
▲권대길(구미) 20만원
▲권경호(대구 수성) 20만원
▲권우식(인천) 20만원
▲권기웅(문경) 1차분 10만원
▲권오순(영양) 1차분 10만원
▲권중덕(안동) 1차분 10만원
▲권순관(대구 수성) 1차분 10만원
▲권오열(의성) 1차분 10만원

소계 250만원

▣ 대의원 회비

▲권영태(선산) 10만원
▲권오영(원주) 10만원
▲권영화(선산) 10만원
▲권승구(서울 마포) 10만원

소계 40만원

합계 590만원

바로잡음

본지(2011년 11월 1일 제 437호) 2면 부정공과종회 광고란에 감사 권오진, 권용한씨는 감사가 아님으로 이를 삭제합니다. <권혁세 안동기자>

권영설 부회장 모친 별세

권영설 검교공과종회 부회장의 자당(모친)인 인동장씨(仁洞張氏)가 지난 10월 23일, 안동시 용산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 10월 25일 3일장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검교공 원당종회 묘원’ 묘지에 안장됐다.